

광주상의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 전액 반영해야”

기재부 “지역 사업” 역시 주장으로 670억원 중 25억원만 추경 반영 “전국 900여 기업 이용 중인 국가 사업...추경안 확정엔 심각한 차질”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회)가 정부와 국회 등에 광주의 미래가 달린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실증벨리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광주에서 진행 중인 전국 유일의 국가 AI데이터센터 등 AI 2단계 사업을 지역 자체 사업으로 왜곡하고,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광주상회의는 21일 한상원 회장 명의의 건의문을

내고 기획재정부,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위원 등에게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이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위해 올해 꼭 필요한 670억원의 국비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역 사업으로 예곡 축소하고 추경에 25억원만

반영했다. 기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상황에서, 광주만 별도 지원하는 것은 예산 중복 집행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도 내놨다. 광주상회의는 “광주에 설치된 국가AI데이터센터는 전국 900여개 기업이 2000여건의 AI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전국 단위의 국가 공공 인프라로, 지역 사업이라는 기재부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국가AI데이터센터는 현재 기업 지원은 물론 고성능 연산장비(GPU),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보안 인증 체계, AI 테스트베드 등 핵심 자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내 기업·대학·연구 기관이 고비용 장비 없이도 AI 기술 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 AI데이터센터”라고 강조했다. 광주상회의는 “추경안이 이대로(25억원) 확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한정해 분류한 것은 국가적 활용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그 의도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광주상회의는 이어 “AI 기술 주권 확보는 단기적 재정 지원만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중장기적 기반

시설의 구축과 안정적 운영이 병행될 때 완성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초거대 언어 모델,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은 자체적인 고성능 연산 환경 구축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 AI 인프라의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광주상회의는 끝으로 “광주 주도의 인공지능 사업이 향후 본예산과 중장기 재정 계획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서 정당한 예산 배분이 이뤄지길 거듭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HS효성첨단소재, 친환경 고성능 탄소섬유 중합 성공

투자 참여 미 ‘트릴리엄’ 개발 탄소 발자국 25% 감축 기대

HS효성첨단소재가 식물 기반 친환경 고성능 탄소섬유 중합에 성공하면서 최대 25%의 탄소 발자국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얻은 큰 성과여서, 추후 HS효성첨단소재의 친환경 제품 확대 등이 기대된다. HS효성첨단소재는 21일 “2022년부터 투자한 미국의 화학 기술 스타트업 ‘트릴리엄’의 제품으로 친환경 고성능 탄소섬유 중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트릴리엄사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친환경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 (ACN)을 100% 바이오 기반 우주항공 등급 ‘폴리아크릴로니트릴’ (PAN)로 중합했다. 중합은 분자가 결합해 더 큰 분자량을 가진 화합물이 되는 것이다. ACN은 플라스틱이나 섬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며 PAN은 ACN을 이어 붙여 만든 플라스틱 성분으로, 우주항공이나 자동차, 자전거 프레임, 골프채 등에 사용된다. 탄소섬유의 90% 이상이 PAN을 이용해 만든다. 특히 이번 시험 성공의 큰 의미는 기존 석유계 프로필렌 원료가 아닌 바이오 ACN으로 고성능 탄소섬유의 생산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HS효성첨단소재에 따르면 식물 기반 원료로 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하게 되면 프로필렌 탄소섬유 대비 약 15~25%의 탄소 발자국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바이오 기반 고성능 탄소섬유는 자동차·항공·에너지·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어 회사의 친환경 제품 다각화도 가능하다.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100% 바이오 기반 탄소섬유 상용화를 넘어 당사가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 전반을 친환경·바이오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친환경 첨단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전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 “에너지 생태계 조성”

다음달 12일까지 참여 기업 공모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첫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전이 보유한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우수사례를 알리고, 유망한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우수 사업모델과 사업화 주체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기간은 21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에너

지 신기술 사업화 우수사례와 유망기술 활용 사업 모델 콘테스트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우수사례 부문은 한전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경험이 있는 기업, 콘테스트 부문은 창업 7년 이내 중소 또는 벤처기업들을 공모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startup@ksa.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전은 1차 서류평가에서 통과한 30개사를 대상으로 각 부문별로 5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6월께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최종 경연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경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전 사장상, 한국표준협회장 및 한국기술지주회 사협회장상 등이 수여된다. 또 공모 부문에 따라 ‘CES 2026’ 참가, 중동지역 수출촉진회 참가 지원, 사업화 자금(1000만~30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대전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유망한 에너지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기술 사업화와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암 ‘남산농원 플라워샵’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남산농원'의 다양한 꽃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5월 18일까지 '남산농원 플라워샵'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남산농원은 영암군 소재 지역 화훼농가로 국화, 금어초, 프리지어 등 우수한 품질의 꽃들을 수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GICON, ‘SW·AI 교구재 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5월 9일 오후 3시까지 ‘2025년 광주형 SW·AI 교구재 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SW) 미래채용사업’으로, 광주시 내 SW·AI 교구재 개발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역 기업 3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시 소재 SW 교육 및 ICT 관련 기업이며, 제작지원을

통해 신규 제작된 교구재들은 광주시 주월동 ‘광주SW미래채용센터’에 설치돼 학생들에게 실험성을 검증받게 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GICON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이메일(phw@gicon.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광주SW미래채용센터에 교구재를 설치해 교육 현장에서의 실험성을 검증하고, 초·중·고 디지털 기초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며 “광주 소재 ICT 및 에듀테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고용정보원 임금·직업 정보 제공 포털 오픈

한국고용정보원은 21일 “임금과 직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인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wagework.go.kr)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임금직업포털의 임금 정보는 사업체 규모·산업·직업·학력별 조건 중 최대 3개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직업 정보는 537개 대표 직업에 대한 수행직무, 준비 방법, 요구 능력, 일자리 전망, 자격 및 훈련 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직업정보 검색은 직업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 분류별 검색, 직능수준 검색을 비롯해 직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정보와 컨설팅 자료, 노동시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직업 정보, 임금 및 직업 관련 동영상 자료 등도 볼 수 있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현재 내 직무에 적합한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기업은 직무별 임금수준 설정과 임금체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yang@

스프라이트·환타·미닛메이드 가격 5.5% 인상

코카콜라음료, 코카콜라는 제외다”고 말했다. 앞서 코카콜라음료는 원·부자재값, 전력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지난해 9월 가격을 올린 바 있으며 소비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 품목에서 코카콜라는 제외했다. /연합뉴스

코카콜라음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조지아 등 일부 품목의 출고가 평균 5.5% 인상한다. 코카콜라는 제외됐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기준 스프라이트 350ml 캔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오르고 환타 350ml 캔은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 파워에이드 600ml 페트는 2400원으로, 미닛메이드 350ml 페트는 2000원으로 각각 100원 오른다. 코카콜라음료 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내외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용 상승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이번 가격 인상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률과 품목을 최소화했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8.42 (+5.00)
↓ 코스닥	715.45 (-2.32)
↓ 금리 (국고채 39년)	2.331 (-0.031)
↓ 환율 (USD)	1416.65 (-6.65)
<small><오후 5시 10분 기준></small>	



기아 EV3. <기아 제공>



현대자동차 스마트 택시 표시등. <현대차 제공>

기아 EV3 ‘2025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현대차 6개 제품 본상 수상

현대자동차-기아는 “2025 레드 닷 어워드”의 제품 디자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6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눠 우수작을 선

정한다. 기아 EV3는 이번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앞서 기아는 2022년 EV6, 2024년 EV9으로 동일 부문 최우수상 수상한 바 있어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현대차 아이오닉 9과 디올 뉴 팔리세이드, 스마트 택시 표시등,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이-피트(E-pit) 초고속 충전기, 픽셀 비상 방지 앤 커터 등 6개 제품은 본상을 수상했다. 본상을 받은 현대 스마트 택시 표시등은 기존 택

시 표시등과 운행 상태 표시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루프 중앙에 있는 택시 표시등과 달리 조수석 위쪽의 루프 밑단에 표시등을 장착해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기아의 디자인 철학과 미래에 대한 영감이 응집된 결과”라며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약세장에 달러 사자”...달러예금 다시 증가

골드뱅크는 역대 최대

최근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자 달러예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노벨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예금 잔액은 607억4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의 580억2000만달러보다 4.7% 증가한 수준이다.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지난 10일 563억5000만달러까지 더 줄었다가, 이후 17일 까지 불과 5거래일 만에 40억달러 넘게 다시 증가했다. 환율은 미국 상하관세가 발표된 지난 9일 주간 거래 증가 기준 1484.1원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고

조된 지난 17일 1418.9원으로 하락, 지난해 12월 5일(1415.1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고객들이 단기적인 환율 등락에 따라 외화예금을 적극적으로 사고파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 투자 인기도 뜨겁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골드뱅크 잔액은 1조6499억원으로 집계됐다. 골드뱅크는 통장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3개 은행 잔액은 지난달 말 1조원을 돌파한 뒤로도 연일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우고 있다. 골드뱅크 잔액은 2023년 4월 말(5239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연합뉴스